

박형준 / 4월 / 기출GS / 4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517297	21	14	23	13	71	1	4.17%	6	24
517234	21	14	22	13	70	2	8.33%	5	
517310	20	13	22	14	69	3	12.50%	5	
517200	20	13	22	12	67	4	16.67%	5	
517546	19	15	20	13	67	4	16.67%	4	
517718	22	13	19	13	67	4	16.67%	4	
517346	21	12	21	12	66	7	29.17%	5	
517168	20	12	19	14	65	8	33.33%	5	
519124	19	12	23	11	65	8	33.33%	5	
517156	23	11	20	10	64	10	41.67%	4	
517203	18	12	22	12	64	10	41.67%	5	
517425	20	13	20	11	64	10	41.67%	6	
514504	19	11	19	13	62	13	54.17%	5	
518044	20	11	19	12	62	13	54.17%	5	
518073	20	11	19	12	62	13	54.17%	5	
517145	21	9	19	12	61	16	66.67%	5	
519343	18	13	17	12	60	17	70.83%	4	
518198	22	8	16	12	58	18	75.00%	5	
518218	19	10	17	11	57	19	79.17%	5	
515018	19	10	17	8	54	20	83.33%	5	
517303	16	9	19	10	54	20	83.33%	5	
518227	20	12	16	6	54	20	83.33%	5	
517215	19	10	20	4	53	23	95.83%	5	
519409	14	8	14	9	45	24	100.00%	4	

박형준/4월/기출GS/4회/1번	채점자
	김시연
<div data-bbox="204 468 454 508" data-label="Section-Header"> <h2>1. 전반적인 총평</h2> </div> <div data-bbox="204 566 1399 741" data-label="Text"> <p>굉장히 길게 서술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길게 서술된 문제는 보는 순간 길이에 압도되어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읽어주시고, 이렇게 문제가 길수록 오히려 문제 안에 힌트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해 주세요.</p> </div> <div data-bbox="231 799 1062 837" data-label="Text"> <p>쓰라는 것이 제법 명확한 문제였어서, 다들 잘 써주셨습니다.</p> </div> <div data-bbox="204 891 1399 976" data-label="Text"> <p>다만, '유추적용', '법적지위' 등 다소 모호할 수 있는 논점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갈피를 잘 잡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p> </div> <div data-bbox="204 985 1345 1023" data-label="Text"> <p>따라서,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답에 접근해주시면 모두 일정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p> </div> <div data-bbox="204 1126 660 1164" data-label="Section-Header"> <h2>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h2> </div> <div data-bbox="231 1225 400 1263" data-label="Section-Header"> <h3>(1) 설문 1</h3> </div> <div data-bbox="204 1321 1399 1449" data-label="Text"> <p>신규성, 진보성, 자유기술향변을 판단할 수 있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놓고 3가지 항목을 비교하여 기재하라고 나온 문제는, 각각의 결론이 눈에 띄도록 목차를 구성해주시면 좋습니다.</p> </div> <div data-bbox="204 1509 1399 1592" data-label="Text"> <p>간혹, 신규성과 진보성을 한번에 판단해서 한 목차에 적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러한 기재방식보다는 각각을 나눠서 결론 지어주시는 것이 훨씬 보기 좋았습니다.</p> </div> <div data-bbox="204 1648 1399 1731" data-label="Text"> <p>문제가 쉬울수록 분량, 가독성, 목차에서 점수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p> </div> <div data-bbox="231 1789 403 1827" data-label="Section-Header"> <h3>(2) 설문 2</h3> </div> <div data-bbox="204 1886 1399 2016" data-label="Text"> <p>선사용권과 중용권에 대해 써주시고, 유추적용 가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명확한 사안이 아니기에, 적당히 자신만의 논리적 근거와 결론을 내려주시면 일정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p> </div>	

(3) 설문 3

갑의 판단시점이 소급되기에, 을은 선사용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을이 선사용권을 가질 예비적 지위를 가진다고 적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논점을 놓치신 분들은 이를 꼭 확인해주세요.

(4) 설문 4

심판1과 심판2에 대하여 각각 문제되는 쟁점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설문(4)는 그 길이가 길어서 처음에는 당황하실 수 있으나, 오히려 문제에서 작성해야하는 논점을 거의 다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문제에서 떠먹여주는 논점에 대하여는 분량에 맞춰 최대한 길고 자세하게 기재해 주세요.

3. 소결

기출 문제를 풀다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실제 시험 문제는 GS와는 달리 모호하고 불친절하고 긴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시험장에서 인쇄 상태를 검사하면서 슬쩍 문제를 봤는데, 문제 길이가 길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문제가 길면 그만큼 힌트도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출제자의 출제 포인트가 무엇일까, 무엇을 물어보는 것일까, 어떤 논점이 중요할까,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판단 사항들이 필요할까를 고민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p>박형준/4월/기출GS/4회/2번</p>	<p>채점자</p>
	<p>김시연</p>
<p>1. 전반적인 총평</p> <p>표가 나오고, 날짜들이 마구 나오면 시험장에서는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길보기에는 당황스러우나, 자세히 보면 내용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p> <p>또한, 대법원의 대표적인 판례를 거의 그대로 기재해주시면 되는 문제이므로 판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어주시는지에 따라 점수가 갈렸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분할 출원 시, 개정법에 의해 우선권주장 간주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점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p> <p>이런 문제에서, 개정법이 언제 시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근 개정법이라는 점은 지적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p> <p>(2) 설문 2</p> <p>무효심판에 따른, 이행불능과 실시료 지급 청구에 관하여 판례를 적어주시고 결론 내려주시면 됩니다.</p> <p>전형적인 판례 사안이고, 정답도 비교적 명확하니 이런 문제는 답을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또한, 이렇게 구체적이고 특이한 사안에 대한 판례는 최대한 길게 써주실 수록 좋습니다.</p> <p>판례 안에 판단 근거가 여러가지 나오는 경우, 이를 꼭 다 기재해주시면 좋습니다.</p>	

3. 소결

사실 법학시험은 엄청난 창의력과 응용력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사안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이를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의 문제이기에 절대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는 잘 없습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 얼마나 떨지 않고 차분히 잘 쓰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별거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히 풀어주세요!

박형준/4월/기출GS/4회/3번	채점자
	김시연
<p>1. 전반적인 총평</p> <p>방법발명 관련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나오고, 설문별로 조건이 상이하여 자칫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p> <p>답안 작성 전 초안을 짜실 때, (1) 문제 풀이시 사용 해야하는 조건과 (2)써야하는 결론들을 꼭 정리해주셔서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방법특허에 대한 소진이론 관련 판례를 적어주시고, 타당성 여부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판례 사안이고, 이런 중요 판례는 다들 잘 준비해주시는 것이므로 꼭 시험 전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주세요.</p> <p>설문에서 대놓고 '이론적 근거'와 '성립요건'을 논하라고 하였으므로, 목차는 '이론적 근거'와 '성립요건'으로 나눠주시는 것이 좋습니다.</p> <p>(2) 설문 2</p> <p>속지주의와 권리 소진 관련 적절히 판단근거를 써주시고 나름의 결론을 내려주시면 모두 점수 부여하였습니다.</p> <p>(3) 설문 3</p> <p>판매금지 약정에 대한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적당히 적어주시고, 나름의 논리로 결론을 내려주시면 다 점수 부여하였습니다.</p> <p>(4) 설문 4</p> <p>실시권자에게 전용품을 공급했던 사안에 대한 판례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또한,</p>	

설문에서 검수/시연 목적으로 실시한 사정이 나오므로, 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점수 부여하였습니다.

3. 소결

답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예상되는 모범 답안이 존재하지만, 시험장에서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1)논리적인 근거와 이로 인한 (2)결론 도출, 이 두가지에만 집중하셔서 답안을 구성해주시면 어떻게든 일정 점수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답안지의 목적은 암기 확인이 아니라 논리력 확인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주세요.

<p>박형준/4월/기출GS/4회/4번</p>	<p>채점자</p>
	<p>김시연</p>
<p>1. 전반적인 총평</p> <p>pbp 청구항과 관련한 논점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청구항과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 적을 수 있는 판례와 내용들이 한정적이므로, 꼭 잘 기억해서 남들만큼 써주셔야 합니다.</p> <p>또한, 문제 자체에서 이것이 pbp청구항인지 기능식 청구항인지 등을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을 보고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도 꼭 한 번은 연습해주셔야 합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침해요건 판단시 pbp청구항 해석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기재해 주시고, 청구이유를 그럴듯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p> <p>(2) 설문 2</p> <p>특허요건 판단시 pbp 청구항 해석방법에 대한 판례의 변화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설문(1)에서의 침해시 판단기준과 무엇이 다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꼭 알고계셔야 합니다.</p> <p>또한, 방법이 진보하다는 이유로 진보성 흠결이라고 적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판례의 변화 태도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 진보성 보다는 신규성 흠결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보입니다. 논점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p> <p>(3) 설문 3</p> <p>사안이 동일한 발명인지 적당한 근거와 이유를 적어주시면 점수 부여하였습니다. 신규성과 관련하여 동일한 태양이 총 3가지 존재하는데, 따라서 문언적 동일이 아닐지라도 동일한 발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주시면 좋습니다.</p>	

3. 소결

전반적으로 해당 회차는 분량면에서 다들 적절 분량을 채워주셨고, 논점도 잘 캐치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들이 다 길고 복잡해보여 문제 풀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맘때쯤, GS를 쓰기가 너무 싫어서 암기량이라도 늘리고자 하루종일 책만 주구장창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시기에는 GS를 쓰는 것도, 책을 암기하는 것도 모두 어떻게든 도움이 됩니다. 어떤 공부를 하시든, 그 순간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면 반드시 시험 때는 그 도움을 받게 되므로 GS를 쓰는 순간에도 힘드셔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작성해주세요!

[문제 1]

I. 실문 (1)

1. 소극적 권리변위확인심판 예시. 취지 - 법 제 135조 2항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 및 예방을 위하여, 아래관계안은 본원변위 심판에 관한 공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

2. 특허발명 신규성 심리 거부 뒤서기 - 적극

특허가 출원당시 공지공백인 경우 권리변위가 부정된다고 하여 ^원신규성 심리 가능하다고 한다.

3. 특허발명 진보성 심리 거부 뒤서기 - 적극

① 특허 우선 추정. 권리변위확인심판 불허 및 불응을 고려할 때 특허발명 진보성 심리할 수 있고 ② 우선심판 기능 약화를 고려할 때 권리변위 부정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4. 실시발명 신규성, 진보성 심리 거부 뒤서기 - 적극

권리변위확인심판에서, 실시발명이 공지공백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면 대비한 필요없이 권리변위 통과지 않는다 하여, 심리가능하다고 한다.

II. 실문 (2)

1. 신사용권 적용 거부

(1)의 취지 - 법 제 103조

선출원주의 위반, 선형분배 위반, 항변 등 고려하여

출원 지복리 실시하진 지에게 무상 실시권이 인정된다.

(2) 우선

출원 전부터 선의로 국내에서 실시사항을 하거나 실시사항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3) 권리

발명을 등록 없이, 출원 시부터 발명을 실시사항 하거나 준비 중인 경우, 특허 등록 시 유상의 동상실시권이 발생한다

(4) 그 실시행위에 유추 가법

① 특허 발명을 출원 전 이미 제3자에게 참가한 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② 발명이 '마마'로 불리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③ Z는 이를 모방하여 출원한 것임이, ④ Z는 특허 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⑤ 따라서, Z에게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다.

2. 동등권 적용 가법

(1) 예외. 특허법 제 109조

산업상 이용을 위해 무해사유를 모르고 실시하던 자에게 유상의 동상실시권이 인정된다.

(2) 예외

① 중복 출원이거나 보완 출원이어야 한다.

② 특허 출원 전부터 선의로 해당 발명의 실시 또는 실시행위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3) 결과

변다를 증극 있이다. 무한 실패 실패 확정 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내에서 유상이 통상 실시권이 인정된다.

(4) Z 실시행위에 유추 가복

① Z는 특허가 상용성, 경제성이 있어 무한이다. Z의
 발명을 자유기술로 처리받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② 침해가 성립하지 않고, 자기의 발명을 실시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선의'의
 의미를 관여자로 해석하여 중용된 인정할 수 있다.

II. 실용(3)

1. 국내우선권 주장 효과

→ 최초 명세서 등의 행에서 판단시점이 소급된다.
 (지속 제 55조 3항)

2. A+B+C의 ~~판단시점~~ 법적 지위

甲은 A+B+C의 창상행위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국내
 우선권 주장한 것인바, 선출원은 1년 3월 뒤 취하권주
 될 것이다.

3. Z 법적 지위

(1) 선출원 지위

Z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는 발명을 특허 T부터
 출원일이 앞지른 바, 선출원 지위에 있다.

(2) ~~특허권~~ ~~선출권~~ ~~지위~~ 공지가술의 지위

~~특허~~ ~~권~~ 이 독자 개발한 발명이 공시된 발명인 경우, 공지
기술의 지위를 가진다.

IV. 실문 (4)

1. 공중 경쟁

(1) 심판 대상 제19조

소급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 대상은 심판 청구인이
주체적으로 특정된 확인대상 발명이며, 실시발명과 상이
한 경우라도 자법 요건은 별지. 심판대상은 여전히
확인대상발명이다.

(2) 사안

심판 1 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발명 군이고 심판 2 에서
미래 발생 실시하는 발명 Y가 심판대상이다.

2. 심판 1 경쟁

(1) 확인대상발명이 실시 가능성 없는 경우 제19조

제19조는 확인대상발명이 실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확인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며,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
실시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전제

실시 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청구하여 심판 청구 비용을
막기 위해, 제19조는 타당하다.

(3) 사안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이 실시 가능성이 있어 특인의 이익
이 있는지 문제된다.

3. 실패한 쟁전

(1) 장래 실시 예정 발명

1) 이해관계인 특191

특수 실패한 쟁전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법적으로 손해는
입거나 입은 연려가 있는 자로,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제조, 판매한 자로 포함된다.

2) 특인대상발명 특191

현재 실시 중인 것만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특인대상
발명이 될 수 있다고 한다.

(2) 쟁전

분쟁 예방이라는 권리방위책인 실패한 쟁전을 고려할 때
장래 실시 예정인 발명으로 특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특191에는 있음 타당하다.

(3) 사안

미래에 실시하려는 특에 대해서도 특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문제 2]

I. 선택 (1)

~~1. 국내우선권 주장 제도~~

1. 관련 이익제도

(1) 분할출원 - 법 제 52조

출원인 이익을 위하여, 출원의 일부를 분할하는 제도이다.

(2) 국내우선권 주장 제도 - 법 제 55조

조약우선권 주장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선출원자로 판단시점을 고려하는 제도이다.

2. 특징

분할출원 A, B에서 '우선권 주장 취지' 및 '이 사건 선출원 표시'를 하지 않아 우선권 주장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우선권 주장 효력은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3. 우선권 주장 요건, 절차 - 법 제 55조 2항

선출원의 특가를 받으려는 경우 중의 출원의 최초 명세서 범위 내에서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하여야 한다.

4. 분할출원 시 국내우선권 주장 독립성

(1) 구법 하 체계

구법 하 체계는 원출원에서 ~~우선권 주장 취지~~ ^{하였더라도} ~~않은~~.

분할출원 시 또 우선권 주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하였다.

(2) 2022. 4. 20 시행 개정법

사소한 절차적 실수로 우선권 במקרה가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원출원에서 적법하게 우선권주장을 하였다면
분할출원에서 적법하게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본다.

(특 제 102 조항)

4. 사안

(1) 우선권주장 시기적 문제

PCT 출원을 이 사건 선출원! ~~22.1.20~~ 21.8.29부터
1년이내인 22.1.20 출원되고 적법하게 우선권주장하였다.
자금지정이므로 국내우선권주장 절차에 의한다.

(2) 우선권주장 효력 발생지

PCT 출원에서 우선권주장 적법하므로. 분할출원 A, B에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우선권주장 효력 발생지

II. 실문(2)

1. 무효심결 소항 - 특 제 133조 5항 본문

무효심결 결정시 특허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봄.

2. 문제점

특허 심판에 있어, 미지급 심의를 청구 기부가 문제된다.

3. 해결책

(1) 심사계약 후원 방안

특허 무효심결 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봄. 심사계약

체결 시 특허가 우선로 확정되는 경우, 실시계약 중 특허
특허권 침해라는 점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주행권 이행권

특허자에 대하여 실시계약 시, 실시권자의 실시에 대하여
이행권자청구 등을 할 수 있고, 특허권의 독점-배타
적인 성격에 의해 제3자의 실시가 금지되는바, 특허권
인격으로 보아하고, 특허 실시계약 체결 후 특허가 무효
로 결정되면 실시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상태
에 빠지게 된다는 점이 타당하다.

(3) 권리

① 실시계약이 원상회복 이행불능이거나 ② 실시계약 자체
에 별다른 무효사유가 없는 한 ③ 특허권자는 실시
계약이 유효한 기간이 상응하는 부분의 실시로 자금을
충당할 수 있고, 이는 권리남용이나 할 수 없다.

4. 비판

특허 무효의 이론. 공중 영역에 특허는 발명을 이용한 ^{크게} 자에게
공중 영역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이익을 주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5. 결론

실시계약 체결 후 무효판결 확정된 경우라도, 그때
까지도 제3자의 특허 침해 실시가 금지되고 실시
권자는 특허 공언하게 특허법령을 실시하여

사실상의 가솔진입장벽을 형성하였고, 실시계약 체결 당시 추구하였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해야 할 것인바 특허에
가 타당하다.

6. 사안

따라서, 특허 조에게 실시계약 유증한 기간의 미충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권리남용이 아니다.

[문제 3]

I. 설문 (1)

1. 구매행위

구매행위는 특허법상 실시가 아닌 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사용행위

(1) 권리소지 여부. 취지. 근거

특허권자 등이 국내에서 특허권을 적법하게 양도 시 특허권 목적 달성하여 소진되므로 해당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 효력이 제한된다. 물건의 자유로운 유통 및 거래안전을 위하여 특허에로서 행해진 행위이다.

(2) 설립요건 - 방법발명의 경우 특허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가 국내에서 ~~특허발명~~ 방법발명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 시, 특허권은 목적을 달성하므로, 해당 물건은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가) 독거

① 물건의 자유로운 유통 및 거래 안전 ② 특허권자의 대가권으로
가려 함. ③ 물건방형과 방법방형은 카테레 차이인 볼 셋과
자이로 동일함. 방법방형에 대하여는 사건을 인정할 수 없음.

(나) 사안

국내에서 甲 특허의 방법방형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이
이 사건 물건을 적법하게 실시권자인 乙이 양조한 바, 특허권
은 특정 결정하여 소진됨으로, 이를 이용해 방법방형 실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음. 따라서
丙의 사용행위에 대하여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丙 주장 타당성

구해 사용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음 바,
乙의 주장은 타당하다.

II. 결론(2)

1. 문제지

실시권자 乙이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제조, 판매하여 제3자가
국내로 수입한 바, 국외에서 양조 시에 乙 특허권이 소진되는지
문제로 국제적 권리권을 인정할지 문제된다.

2. 화선

① 긍정설로, 물건의 자유로운 유통, 거래 안전을 위해 이를 인정
한다. ② 부정설로, 특허권자의 국내의 가격정책에 의한
이윤 확대 보장 등을 이유로 국제적 권리권을 부정한다.

3. 특허

① 재발된 특허는 국내에서 양도 시, 특허권이 권리상계
되나, 국외에서 양도 시 인정되는지 명시적으로 한 바는
없다. ② 하급심 특허에서 외국에서 양도 시에 다른
영향은 없다.

4. 권리

특허권 소지 인정 취지는 물건이 자유로운 유통, 거래관계
이며 이러한 공익보다 특허권자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특허권자는 재가해능능력이 있으므로 국외
양도 시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 사안

실사권자 Z이 甲특허권이 국외에서 재발된 바, 특허권
특정 사실 인정한다. 특허권 효력이 국외로 이 사건 효력에
미치지 않는다..

Ⅲ. 결론 (3)

1. 문제점

① 최초 구상자 Z이 재발된 권리권 행위를 위반하여 다시
양도한 경우, 권리소지가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② 재발행위는 특허권 상실의 사유가 아닌바, 甲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해설

① 긍정적으로, 재발된 권리권 행위의 위반한 경우이다



특권의 자유권을 유효를 위하여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② 특정권은 재판매 제한 위반시 적법한 양도가 아니므로 특허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3. 검토

특정 구입자가 재판매 금지조건 충족을 위반하여 다시 양도한 경우라면, 특허권자로서는 최초 구입자에게 판매 시 계약항목의 이행이 충족되었으므로, 여기에 특권의 자유권을 유효. 개념상까지 고려하면 판매 제한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허권이 무효로 인정하여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4. 사안

① 구매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주권이 매치지 않는다.

② 재양도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특허권을 이미 무효로 인정하여 소진되는 바, 특허권 주권이 제한된다.

Ⅳ. 결론(4)

1. 간접침해 의미. 취지 - ~~특권 제 12조~~

특허권은 무제 재산권으로 침해 행위가 용이하지 않다.

바. 직접침해 개연성이 높은 간접행위를 침해로 간주한다.

2. 방범방범의 경우 - ~~특권 제 12조 2항~~

방범방범의 실시에만 사용자를 목격할 경우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저작·발표 행위

(1) 전무권 침해 행위

이 사건 전무권을 저작·발표한 바 없었기 때문이다.

(2) 간접침해 행위

1) 간접침해와 직접침해 관계

① 독립권, 공동권 등 관계가 있으나 ② 권리자는 구체적인

2) 간접침해 내재적 관계

권리와 같은 사안에서, 간접침해를 인정하면 당사자의 권리
관계 제각각, ③ 독립권: 권리 부당하게 행사되고 ④ 권리
권자는 이러한 행위를 예상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특허권자의 독립적인 이익이 새롭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간접침해를 부정하였다.

3) 사안

전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저작·발표
행위는 간접침해가 아니다.

4. 진위·공연 행위

(1) 진위

저작·발표행위가 진위가 아닌 이상,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진위·공연행위로 진위가 아니라고 한다.

(2) 공연

저작·발표행위가 진위가 아닌 바, 도의 진위·공연

행위는 이에 필수적인 수단적인 것에서 친해가
아니다.

5. 해 X의 제작권이 실시권 내지

취득이든 필수적인 것인 수단적인 것이지 통상상속권
범위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할바, 해 X의
실시권 계약에 실시장소 제한 등이 없으므로 제작권은
실시권 내의 사용으로 판단된다.

6. 주장 타당성

기술시연 및 제작·배포 행위 모두 친해 아니므로 주장을
부당하다.

[문제 4]

I. 실문 (1)

1. 청구항 해석 원리

(1) 청구항의 기준 읽기

청구항은 발명본래의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청구항의 해석은
청구항을 원칙으로 한다.

(2) 발명이 설명 함자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발명이 설명을 참조한다.

2. 청구항의 해석

① 제 2항 발명은 '물질 A로 구성되며 B방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제2제 P이다. ② 제 3항 발명은 '물질 A로

구성되며 B방법에 의해 기재되는 기재에 P'로 문헌을 인용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 ③ 또한, 구성요건에 원적상
 1항 방법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④ 따라서 2회
 판매지점 < 기재 P는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II. 문제(2)

1. PBP 청구항 여부

1항 방법의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2방법의 기재를
 포함한다.

2. PBP 청구항 해석 시 19.1

(1) 제2방법의 의미

① 특허법상 발명을 물건, 방법, 제2방법 발명으로
 구분되고 ②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2
 방법의 기재를 포함하는 PBP 청구항의 대상으로
 최종 생산물인 바, 물건발명에 해당한다. ③ 물건
 발명의 특징을 구체적 성질에 인하는 바, ④
 PBP 청구항로 마찬가지로이다.

(2) 결론

따라서, 제2방법의 기재가 필요 있는지에 관한 사정이
 관련 없이 특허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청구항
 에 기재된 제2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
 모든 기재에 인하여 특정되는 구체적 성질 등을
 가진 물건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청구이유 작성

(1) 발명 향상

① 청구항 제 1항은 PBP 청구항이다.

따라서, 제2방법 기사를 포함하여 모든 기사에 대하여 특징되는 구성나 성질을 갖는 제2제 P로 파악하여야 한다. ② B방법이나 C방법이 제2제 P의 구성나 성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선행문헌의 발명과 특허발명 모두 제2제 P이다.

(2) 신규성 부정

① 발명은 모두 구성 A로 된 제2제 P인바, 특허발명을 신규성이 부정된다.

② 제2방법은 구성이 아니므로 B방법이 C방법보다 진보성이 있다고 하여 구성나 성질에 변함 없고, 그와 별개로 신규성을 부정된다.

III. 설문(3)

1. 신규성 판단기준 제1항

(1) 내재적 동일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한 분, 기술 내용이 동일하다면 신규성이 부정된다.

(2) 동일 의미 판단방법

구성이 동일함에 의하여, 효과를 침범한다.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 청구이유

특허법은 기술 사상의 실체에 착안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하되, 특허법명과 실시법명은 제2제 P를 H시스템 또는
D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는 프로그램 K로서, ① 기술 내용이
동일하고 표현상 차이에 불과하다. ② 구성은 제2제 P로 동일
하고, 효과의 차이로 인한 ~~판정~~ ③ 따라서, 제 3항은
신규성이 부정된다.

가장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Y, 박자, 네랑 좋아!!

※ 여기에 기재한 사항은 채점하지 않으나,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안됩니다.
※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문제 1]

I. 선택 1

1. 논점

(1) 천리방위 확인심판에서 신상성, 진상성의 안한 부당사유 주장 및 자유상시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는 지.

2. 천리방위 부정여부

(1) 신상성 위반의 경우

甲의 특허발명이 신상성 위반의 부당사유를 주장하면서 천리방위 부정
주장을 하기 위하여 천리방위 확인심판에서 진상 가능하리.

(2) 진상성 위반의 경우

甲의 특허발명이 진상성에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천리방위 부정
주장을 천리방위 확인심판에서 진상할 수 없다.

3. 자유상시가능성 주장여부

(1) 사안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상시가능성에 해당한다 주장하면서 천리방위확인
심판에서 주장 시 甲의 천리방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재산권 확인대상발명을 배척하는 것이 분명히 이러한 판결
하는 것은 과당하다.

II. 선택 2

1. 신상성 위주 여부

(1) 의미 - 법제 10조

특허출원 전에 신상으로 실시한 결과 실행 실시한 있는 자에

법정심사권을 인정해주는 제2조이다.

(2) 우전

① 출원 전부터 실시.

그런 후에 안배기를 출원하기 전에 안배기를 생산 및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

② 선언의 실시.

선언인 경우엔 실시자의 자류추진과 다르게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실시하는 경우인데 그 경우 후에 발명이 효력을 받고 있는 안배를 공개 되자 이를 모반하여 안배(A+B+C)를 생산·판매하면 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후과.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 실시자에게 법정심사권이 인정된다.

(4) 사안.

그런 후 출원 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었다나 후에 발명이 있는 것을 알지 실시해 선이 부진하면 선사용자의 범위는 유추재용 될 수 없다

↓ 송문권 유추재용 책

(1) 의의 - 제104조

무효심판청구 전에 자신의 발명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실시하거나 실시준비중인 경우 유상의 동상심사권 설정해주는 것이다.

(2) 우전.

① 무효판결소결전의 실시.

지은 특허 출원 전 실시로 위 요건을 만족한다.

② 무효로 될 것 알지 못한 실시.

지은 경우 특허 발명을 모방하여 생산·판매하였지만, 특허 출원 전 실시시킨 기술부터 자유선택기술을 이유로 생산·판매하고 있었으므로 위 요건으로 만족한다.

(2) 사안.

지은 바를 모방제품의 실시지만 자유선택기술이라 되고 특허 출원 전에 사용중이었으므로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해 선의의 오해로 만족될 수 있어 출원인의 방법이 유죄가 될 수 있다.

II 선택 3.

1. 국내무선전주장

(1) 의미 - 첫째 항조.

전송수신기의 운영을 위해, 국내무선전 주파수/장소 송신기/수신기 제1항조.

2. 송신기

(1) 의미.

출력일을 선출원일로 송신기/수신기 송신기 제1항조의 명세서 또는 설명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시 알라 하더라도, 송신기의 가동자가 출원 시의 가동일로 보내 그와 마찬가지로 하고 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출원일이 송신일인 한라.

3. Z의 법적지위.

(1) 특허 T의 범위.

특허 T는 최초 출원 특허의 최초의 명세서 또는 그 변이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이므로 ~~출원발명~~ 발명의 직관사정이 소망된다.

(2) Z의 지위.

4의 우선권주장출원에 대해서는 선출원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잔관사정 발명에 의해 개량된 지위에 있다.

IV. 항문 4.1. 특허법위법확인심판

(1) 의의/목적 - 제135조

주기에 신중하게 특허법위에 대해 결정 내리기 위해, 특허법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는 것이다.

2. 이해관계인.

(1) 취지

특허발명을 실시했거나, 실시하고 있는 자 또는 실시하려는 자가 특허법위법확인심판의 이해관계인이다.

3. 심판 | 장점.

(1) 확인의 이익 - 취지.

특허법위법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이 필연적, 당사자 간의 지 이상 갖추지 아니한 한 발명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2) 사안

그런 발명 글을 심사할 경우 청구가 되는 것을 알고 무리
 심사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권리방기확인심판 청
 구 시 학인의 이익이 침해하지 않게 된다.

4. 심판 1 쟁점

(1) 확인대상발명 특징 - 취지

권리방기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은 과거에 실시했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발명으로 특정 권리방기확인심판은 장래에 실
 시하려는 발명이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한다.

(2) 장래실시예정 - 취지

장래실시예정인지 여부를 입증하게 잔과함의 청구인이 장래
 실시예정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3) 사안

그이 청구한 심판 1와는 관련해서 발명 주가 현재 실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 실시예정인 발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확인대상발명 특징과 관련해서 쟁점이 된다.

[결론]

[문제 2]

I. 선택 1

1. ~~특허출원~~ 특허출원(1) 의미 - ~~특제~~ 1977년타국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2. ~~특허출원~~ 인정여부(1) 의미 - ~~특제~~ 194조

특허출원한 한 날로부터 2월 내에 특허청에 포함된 경우 그 특허출원일호 인정된다.

(2) 사항

2012.1.20 특허출원으로부터 2월 내인 2012.3.12에 사안이 포함하였으므로 특허출원일은 2012.1.20으로 인정된다.

3. ~~특허출원~~ 특허출원(1) 의미 - ~~특제~~ 194조

타국의 출원에 대해 해당국에서 관공시청에 출원한 제2의 출원이다.

(2) 사항

2011.6.19인 출원으로부터 1년 내에 특허출원을 했으므로 출원일호 관공시청이 인정된다.

4. ~~특허출원~~ 6. 우선권 인정여부

(1) 문제점

특허출원 6이 개시하는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인정이 가능하지 문제된다.

Good

(2) 개정법률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첫째 바도 수단을 인정하였는데
분할출원을 적법하게 한 경우, 1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해당 시점 또는 시변 또한 제출
된 것으로 본다

예시안

출원인이 적법하게 ^{우선권 주장} 분할출원을 하였으며, 분할출원 3의 경우
분할출원에 적법하게 지양으로 인해 개정법률 우선권 주장에
인정되는 바 2011. 6. 19에 판단사항이 완화

II. 쟁점1. 무효판 결정(1) 원고 - 제1회 1377호 항

무효판의 심판 확정시 특허는 합격으로 소멸한다.

2. 문제점

(1) 무효판의 합격으로 인하여 특허가 무효로 됐을 때 심사관과
유리한 기간중단의 비판 심사를 자율해야 하는 자가 문제된다.

3. 과거 사례

(1)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 이에 대해 심판 자를 인정하게
되면 무효인 특허권에 대해서 청구를 행사하는 것이 되어
비판 심사가 대응하는 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
였다.

4. 현재 사례

(1) 특허가 부정한 권리인 하더라도 유권하게 존속하는 기간 동안 실시권자는 특허권자로 부터 과잉을 받을 염려가 없으며 특허권으로 인하여 제 3자가 특허를 실시권의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유권한 기간 동안에는 실시권 자를 하여야 한다.

(2) 실행불능 - 判例

실시권이 애초부터 이행불능이었던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이 무효라는 파견 판단을 하여 특허권자를 실시권자 지위를 취할 수 있다.

5. 권리

(1) 무효인 특허권에 관하여 부패관라는 법원이 있지만, 실시권자들 그 동안 독립적 실시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한 차례의 양도를 인정하라.

6. 사안

(1) 2의 경우 1사의 실시권 상권으로 인하여 그 기간 동안 1에게 권리의 침해로 받지 않고, 제 3자를 그 범위에서 실시할 수 없게 이득을 얻었으므로, 실시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확정한 사정이 없는 한 1은 2에게 유권한 기간 동안의 비정상 실시를 취할 수 있다.

[결]

[문제 3]

I. 선택 1

1. 방법발명의 실시(1) ~~제 12 항 제 4호~~ 3항 4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사용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의미함.

J. 처리권 여부

(1) 의미 - 실행특허권자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얻는 경우 권리가 소멸되는 아님.

(2) 문제점

방법발명이 구체적으로 처리권 소멸되지 않음.

(3) 실행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전체적으로는 방법발명을 생성된 물
건을 실시하는 분도 있고 이에 대해서 처리권을 인정해주기
않으면 특허권자는 물체발명과 방법발명을 따로 등록받아 제각
각에 권리를 지킬 수 있어 처리권이 인정된다.(4) 잔여발명 실행물건에 대해서 방법발명 외에 다른 발명이 있는 지 여부
방법에 따라서는 부품, 그리스 등이나 핵심적 구성요소가
각각에 대해 소멸여부를 판단함.3. 주장 판단(1) 처리권

수은 바깥이동 통정방법의 특허권자이고 이 방법을 실용적으로 구현한 장비인 '바깥이동 통정기'에 대해 차지하는 바를 구분이 지배적인 경우 권리가 소멸한다.

(2) 결론

수은의 주요 특허권이 소멸하는 구분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II. 결론 1

1. 문제점

(1) 특허권과 소멸해서 국외에서 수입한 경우 국내에서 권리가 소멸하는 구분이 문제된다.

2. 사실

(1) 사실

수입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바 국외에서의 수입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본래.

(2) 부가사실

국외에서의 수입으로 소멸하는 본래 목적과도 무관하게 맞지 않거나 반대한다 본래.

3. 취지

(1) 특허법이 정당한 취지는 없지만 상표법 관련해서 진정한 수입제도를 하는 본래 있다.

4. 검토

(1) 해자의 다양한 선택권 및 상표법 하는 본래 하는 본래 하는 본래

있음 라량나라.

5. 사안

- (1) Z이 A의 동의를 얻고 허락한 C 제 3자가 이를 수입하였는 바 Z의 제3자 판매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어 A의 특허권 존속이 유지되는가.

III. 결론

1. 문제점

- (1) A나 Z이 맺은 재판매-양도행위가 존속이 있는 금지조건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관련법 여부

(1) 판례

특허권자는 제3자 ~~수입권~~과의 사이에 자신이 판매를 하면서 조건부 가할 수 있으나 그러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소멸한다.

3. 사안

(1) 실시행위 독립성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각 실시행위 별로 판단해야 한다.

(2) 판매행위

C가 통계를 구매한 경우 이는 특허권의 실시행위 볼 수 없어 A의 특허권 존속이 유지되는가.

(3) 사용행위

A와 Z 사이에는 재판매 금지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장은 제 2 조에 의거한 해당권과도 볼 수 있는 兩의 경우 권리부터 투입해 사용가능 함으로써 그래서 제 특허권 권리에 반하지 않는다.

IV. 실용 4.

1. 문제점.

- (1) 조의 실시와 관련하여 물품을 전부 소의 제에 함하는 경우에 이러한 조의 실시 제 특허의 침해가 되는지가 문제된다.

2. 권리권 여부

(1) 제 3자 실시 - 제례

특허권자가 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후 제 특허권자는 제 3자에게 생산을 맡기는 경우까지 생각해 특허 실시권을 설정하여 그에 대한 이득을 얻는 반면에 실시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당 하다고 한다.

(2) 경수·시연행위 - 제례

제 3자가 실시권자에게 물품을 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물품을 제작한 이후에 경수·시연행위를 동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수·시연행위는 침해가 아니다.

3. 실시권 관련 판례

(1) 기판결 - 제례

공공의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관계에 있는 자부 중 한 사람이 관리·감독을 하고 생산된 물품 전부를 받는 경우에는 공발하는 자의 실시로 본다.



4. 직접침해(1) 실질적 의미 - 법 제 127조

특허권의 직접침해 전관제의 행위여 대해 참작한 보는 것이다.

(2) 방법발명의 실시 - 법 제 127조 1호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과 생산, 양조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한(3) 종속권 여부.① 확보.1) 종속권직접침해가 성립한 실질적 간접침해가 성립한지 한가구속권직접침해 성립여부나 상대방이 간접침해가 성립한지 한가② 경로명시적인 배제는 없지만 간접침해 제2 취지상 직접침해가 성립한
경우에 성립한과 비교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5. 사안.(1) 직접침해 여부J의 실시를 전후 X의 실시로 귀결 직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2) 간접침해 여부.J는 전후 X에게 허용 해준 것이므로 J의 주요 시연행위로
실시나 아닌바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위를 조정한 결과 위의 주장은 부당하다.

[결론]



[문제 4]

I. 실문 1

1. 청구범위 규정

(1) 의의 - 제 97조

특허의 청구범위는 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진다.

2. 청구범위 해석.

(1) 원칙 - 4대제.

특허의 청구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상식으로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2) 발명의 설명 참작 4대제.

청구범위를 해석할 때 발명의 설명을 참작할 수 있는데 이때 청구범위를 명세서 및 도면까지 해석을 하여 해석해서도 안된다 한다.

3. 사안

(1) 청구항 1에 있어서 물질 A는 어느 행위로 B방법에 의한 제제 P와 동일하며 청구범위에 속한다 한다.

II. 실문 2

1. 전개문

(1) 의의 - 제 19조 1항

특허는 산업발전을 위해, 공표된 기술정보를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요한다.



2. 심각방법

(1) 체제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 기술수준으로 보아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효과-체제

특인의 심각성은 효과의 현재성이 뒷받침되며, 효과가 현재화 경우 특의 심각성이 인정된다.

(3) 결합방법-체제

결합방법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각각이 진보한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4) 결합의 효과-체제

결합방법은 개시 전체로서 갖는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창의성

(1) 창의성 1과 관련하여 선행기술로 물질 A는 개시되어 B방법에 의해 제2회로 제3회로 P가 있고 B방법이 C방법에 비해 진보성이 있을 수 있으나 결합방법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판단한다 하므로 제 1항은 진보성 위반의 무효사유 있다.

II. 실문 3

1. 신빙성

(1) 의의 - 첫째 예외 사항

공개된 기술과 동일한 발명은 증명받지 못한다.



2. 판단방법(1) 판례

특허발명이 갖는 기술적 특징 및 그 효과를 살펴본다.

(2) 판례관 - 판례

특허의 기술적 사상의 성질에 착안하여 판단한다.

3. 실질적 동일성(1) 판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구성이 주지상용기술의 부가
상제 변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4. 사안

1) 보조용기 K와 보조용기 K1의 경우 그 구성방법이 실질적으로 동일
한 정도에 그친다고 하여 제 3항은 신의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아하여백]

가정님. 문자 아주 좋아합니다!!